

은상

아낌없이 주는 땅



이 형 원 • 제주 안덕초등학교 2학년

저는 아름다운 제주도에서 태어나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 엄마, 남동생 형탁이와 형호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여동생이 없는 게 아쉽지만 저는 가족들이 많은 것이 참 좋습니다. 저희 동생들은 과수원에서 흙 놀이 하는 것을 가장 좋아합니다. 흙을 파고 만지다 보면 옷은 금세 엉망이 되지만 동생들은 즐거워합니다. 땅은 저희 동생들에게 놀이터가 되어 줍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께서는 고향이 전라도인데 결혼하시면서 제주도에 오셨다고 합니다. 처음에 결혼하셨을 때는 제주도에 할아버지 성함으로 된 땅이 한 평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많이 고생하시고 열심히 노력하셔서 지금은 많은 땅을 가지고 계신다고 합니다. 과수원 농사를 지으시는 저희 가족들에게는 땅이 삶의 터전이 되어 줍니다. 저희 과수원

에는 굴, 한라봉, 천혜향, 레드향 등 여러 종류의 나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집은 과수원 안쪽에 있는데 벌레가 많은 것이 싫습니다. 저는 벌레가 너무 무섭습니다. 나무를 쪼는 딱따구리, 과수원을 달려 다니는 꿩도 볼 수 있습니다. 가끔 뱀과 도마뱀도 나와서 저를 깜짝 놀라게 합니다. 저는 자연 속에서 살고 있다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집 가까운 곳에 친구가 없는데 자연이 저에게 친구가 되어 줍니다. 제가 살고 있는 제주도는 푸른 하늘과 푸른 바다, 맑은 공기, 아름다운 경치가 있어 너무 좋은 곳입니다. 저희 엄마 말씀이 제주도는 자연이 주는 선물이라고 하셨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께서는 과수원 농사를 지으십니다. 가족들은 농사일로 항상 바쁘십니다. 봄에는 가지치기하고 거름을 준다고 하십니다. 봄이면 나무에 꽃이 피어 과수원 안에 꽃향기가 가득합니다. 저희 엄마는 가끔 향수를 뿌리시는데 봄에는 꽃 향수를 뿌린 것 같습니다. 여름에는 많이 달린 열매를 숙아 주는 일을 하시고 열매를 달아매어 주는 일을 한다고 하십니다. 가을에는 태풍이 온다고 하면 가족들이 모두 긴장을 합니다. 몇 년 전에는 태풍 피해로 하우스를 씌운 비닐이 벗겨지고 찢어져 보수하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때는 태풍이 너무 미웠습니다.

늦가을부터 굴을 수확하기 시작하십니다. 겨울이면 본격적으로 수확을 시작해 저희 집이 가장 바쁜 계절입니다. 과일을 많이 먹을 수 있어서 좋지만 가족들이 바빠 제가 동생들을 더 챙겨줘야 해서 힘듭니다. 하지만 가족들이 고생하시는 모습을 보면, 제가 할 수 있는 집안일을 도와 드리고 동생들도 잘 돌봐주며 공부도 더욱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태풍이 올라와 제주도에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과수원에 피해 없이 태풍이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땅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자주 말씀하십니다. 땀을 흘린 만큼 좋은 결과를 가져다준다는 말이라고 하셨습니다. 저희 집이 땅의 도움으로 농사를 지어 살아가는 것을 보면 땅이 참 고맙습니다. 전에는 땅의 고마움을 몰랐는데 글을 쓰면서 땅의 고마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땅이 포근히 안아 주는 우리 엄마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땅이 아프지 않고 건강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로는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고 분리수거를 하는 일부터 시작해 봐야겠습니다.

요즘은 땅을 많이 개발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어른들께서 땅을 너무 괴롭히지 말고 땅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에게 아낌없이 모든 것을 내어 주는 땅이 너무 고맙습니다. 땅에게 많은 것을 받았으니 이제는 저희가 땅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생각해서 돌려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